

여명재가 노인복지센터

• 발행처 :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 발행인 : 도 성 숙 • 편집인 : 양 은 순 • 전화 (063) 223 - 5673
• FAX (063)224-6896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 E-mail : careym@hanmail.net

2001 여름호
(통권 제 3 호)

여명재가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정책발전

여명 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전주지역 사회에 특히 노인이나 사각 지대의 저소득 계층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의 토량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관으로서 전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 복지기관입니다.

여명재가 노인복지센터의 전북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의 복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김 훈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여명재가 노인 학대예방상담센터 전문위원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노인을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 '너는 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레 19:32)라는 구절이라든지,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 16:31)라는 구절에서, 노년의 백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므로, 성경적으로 노인은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노인들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현대 사회에서 불건강, 고독, 불소득, 남은 시간, 방치 등의 비복지적 문제들을 겪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노인은 지난 평생을 사회발전의 기여자로 활동하여 현재 사회의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 대한 후세대의 보상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그 재정, 전문인력, 도움의 정신에 있어서 어느 민간조직보다도 우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성원들이 주로 장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인에게 관심과 배려에 소홀히 할 수 없다.

2000년에 실시된 전북의 사회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먼저 경제적인 여유의 부족을 들었으며, 건강의 악화, 소외와 외로움을 들었다. 즉 빈곤, 의료, 소외의 문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활동을 해야 한다. 보통교회는 소득과 고용, 건강, 의료보호 및 재활, 거주보호, 교육제공, 여가프로그램제공, 종교적 개입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교회의 이러한 활동들이 신앙적 동기에서 준비나 계획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실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이 교회의 전통과 이론에 적절한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교단은 교회건물을 '여가' 장소로 생각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에 '노인클럽' 같은 것은 고려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퇴직노인을 위한 주식투자상담교육프로그램은 주식시장이 돈의 잘못된 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교단이나 교인들에게는 금지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가능성을 무시하여서는 않된다.

둘째, 교회가 특정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겠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소득향상의 목적으로 계획된 직업알선프로그램은 대부분 교회가 목회자 이외의 사람에게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므로, 교회외부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만약 병약한 노인들에게 병실 용품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것이 변기나 목발같은 소액의 장비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외의 것일 때는 보통 교회의 예산에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교회가 특정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비교하여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것들의 효과성, 즉 경제적 측면에서 교회의 노인프로그램의 '한계효용'은 교회의 특성이라는 맥락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병상노인들에게 '예배테이프'를 녹음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활동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영적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노인의 영성을 케어하는 성경반이나 목회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것들도 '특별히' 종교적인 것이어서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반해서 병원, 양로원 또는 노인홈의 후원은 교회가 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노인복지적 과업에 두가지 차원을 고려해야함을 알았다. 즉, 교회는 노인을 위하여 ① '오직 교회만이 수행하기에 적당한' 일을 하는 것 ②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 교회가 그것의 수행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해야 한다.

노인은 우리의 근원이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의 필요성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바울라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가 “효”의 으뜸인 한국사회에 왜 필요한가?

노인이 학대받는다든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 하는 우리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노인의 기본인권으로서 당연히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 숨겨져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하루에 밥 한 공기에 반찬한가지만 방에 넣어주고 밖에는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씻기지도 않고 옷도 갈아 입히지 않아 방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구타와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집안에 동물을 끼얹는다. 신체적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며느리가 무서워 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

“설마 자기 부모를...” 라는 사회적 무관심과 이중적 가치관은 노인이 아무 말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학대라는 어두움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현실을 낳고 있다. 이번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인가?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처럼 강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가족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양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쉽게 마음을 열기에는 진한 핏줄로 엉켜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다.

답답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곳, 안심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곳, 본인이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곳,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는 고령화사회를 향해가고 있는 현 시대에 꼭 있어야 할 필수인 것이다.

그래야만,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도움 망,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망, 학대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 망이 만들어 질 수 있고, 노인학대에 대한 법제도화가 전무인 상태인 우리 나라 현실에 이들을 위한 법제도화를 만드는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노인학대! 쓰리고 아픈 말. 보고, 듣고,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미래에 바로 내 자신의 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안아 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미래는 밝을 것이다.

>>> 노인학대사례

1. 박○○ 할머니

첫 번째 학대사례의 박○○ 할머니는 현재 국가의 도움으로 임대APT에 거주하고 있다. 나이가 79세이고 41세에 남편과 사별한 후 3남3녀를 혼자서 키우셨다. 큰아들은 사망하였고 셋째아들은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취업을 했다. 딸들은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군산에 살고있어 실질적으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만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박 할머니를 학대하는 사람은 둘째아들로서 어머니가 살던 집을 빼앗고 술만 마시면 할머니에게 물건을 던지고 과격해져서 할머니의 팔이 멍이 들고 이마가 찢겨서 할머니를 병원치료를 받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순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에게 잘해준다. 할머니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술을 마시고서 행패를 부리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할머니를 괴롭히는 현실인데도 박 할머니는 그 학대사실을 체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숨기려한다. 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또한 두려움인 것 같다.

2. 박△△ 할머니

또 다른 학대사례인 박△△ 할머니는 바람둥이 할아버지 로 인해 질병을 얻어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어 친자가 없는 분이다. 현재 할아버지는 사망하셨고 그 첩의 자식5남매가 호적에 올라있는 상태이다. 그 중에 큰아들은 나면서부터 키워왔고 대상자의 호적이 거기에 있어 국가의 어떤 도움도 경제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호적을 옮기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호적을 옮겨줄 것을 큰아들에게 요구했으나 '거기에서 혜택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혜택이 있다' 면서 계속 거절하고 있다. 동거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호적을 옮길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할머니는 아들이 군인이라서 이러한 소식이 군대에 들어가면 직장을 잃게 되어 나쁜 관계가 될까봐서 그냥 있는 경제적 학대, 방임형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먼 친척 조카딸의 쪽 방에 기거하고 있다. 대상자가 경제적 호소를 하면서도 양자의 신변에 해가 될까 두려워하여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과 내용은 무관함)

전북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 개소식

2001년 6월 1일 김완주 전주시장과 최바울라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축사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 센터에서 전북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가 출항을 시작했다.

노인학대상담(전화, 서신, 내방, 방문),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홍보, 노인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사례사정에 따른 적절한 재가서비스 및 조치,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자원의 NETWORK구축으로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재정적학대, 방임형학대 등을 당하는 노인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신속한 사정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들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데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의 목적이 있다.

230국에서 280국까지 1588-9222번으로 전화하면 『여명재가의 전북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자원봉사자 양 유 순

내가 봉사하는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져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여 혼자서는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가 힘이 들고 변비가 있어서 가끔 배앓이를 하고 계신 85세 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소외된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비된 육체는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오그라 들고 있었습니다. 후에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몸 사랑 마음사랑” 의료서비스로 건강체크와 마사지를 해주고 또 내가 주1회 30분 이상씩 해주는 마사지로 인해서 할머니의 팔과 다리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더불어서 할머니에게 마사지의 필요성을 인식시켜드리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 때문인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에 할머니께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인 손가락마사지와 주무르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할머니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간혹 방문하는 날짜를 잊어버리기에 저 스스로 목요일을 '자원봉사 하는 날' 이라고 정하고 그 날은 꼭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또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할머니는 그러한 자신이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인천에 있는 큰손자 생각이 많이 나는지 자주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가 이렇듯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해보자는 각오로 했고 지금도 봉사하는 시간이 되면 무덤덤함으로 혹은 약간의 부담스러움으로 방문을 하지만 할머니를 보고, 마사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현재의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간은 내 삶 속에서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모에게도 못하면서' 하는 마음이 나를 부담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부모에게 먼저라는 생각보다는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부모님께 더 잘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윤미례

성전 문을 밀고 나오면 눈부신 아침햇살과 함께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오늘도 내게 하루를 충실히 살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기에 매일의 삶을 나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출발한다. 늘 만나도 좋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날의 배달 나갈 도시락 반찬이 무엇인지를 전달받는다.

나는 오전 10시까지만 하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전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재료들을 조리 방법에 따라 찌고, 익히고, 굽고, 튀기는 등 마지막과정을 감당한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힘도, 수고도 훨씬 덜하지만 음식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보람은 훨씬 더 크다. 전에는 식당을 하는 내게 유일하게 비어있는 이 아침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했던 시간임을 자각해 볼 때 지금 내게 허용된 이 아침시간은 보람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내 삶의 질을 높여준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맛보는 감격은 더 큰데 내 안에 감격과 그 기쁨을 나눠보고자 한다.

내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첫째이유는 전엔 나의 관심이 나와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다. 더 나아가 내가 인생을 대하는 관점과 그래서 또 내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그가르침의 핵심이나 중심이 아닌 타인중심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침에서 오는 기쁨이다.

둘째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됨에서 온 기쁨이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과 사라다가 배달 나간 날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은 그 음식을 난생처음 먹어봤다고 신기해했다니 다른 것이야 말해 뭣하겠는가! 난 얼마나 배부른 인생이었는가? 돌이켜보는 모든 것이 감사했다. 물 한 그릇도 김치 한쪽에도…….

셋째는 가족들이 스스로 책임적 존재로 서준 것에 대한 감사다. 아침에 남편과 딸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한다. 찌개 하나만 얹혀놓고 새벽에 나오면 그들은 그 찌개하나에 아침을 먹고 딸은 학교로 남편은 식당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한번도 불평 한적이 없으니 도시락자원봉사로 인해 우리가족모두가 자립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디 감사가 여기에서 끝날 수 있겠는가. 튼튼한 육체 있음에 더욱 감사, 음식 조리할 때 배워서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니 또 감사,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데서 오는 감사, 불평했던 모든 조건이 감사조건 됐으니 또 감사, 오늘도 나는 아침에 기쁨으로 눈뜨고 저녁에 보람으로 눈감기 위해 이 하루를 선물 받았다.

내게 힘주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감사로 채워지길 기도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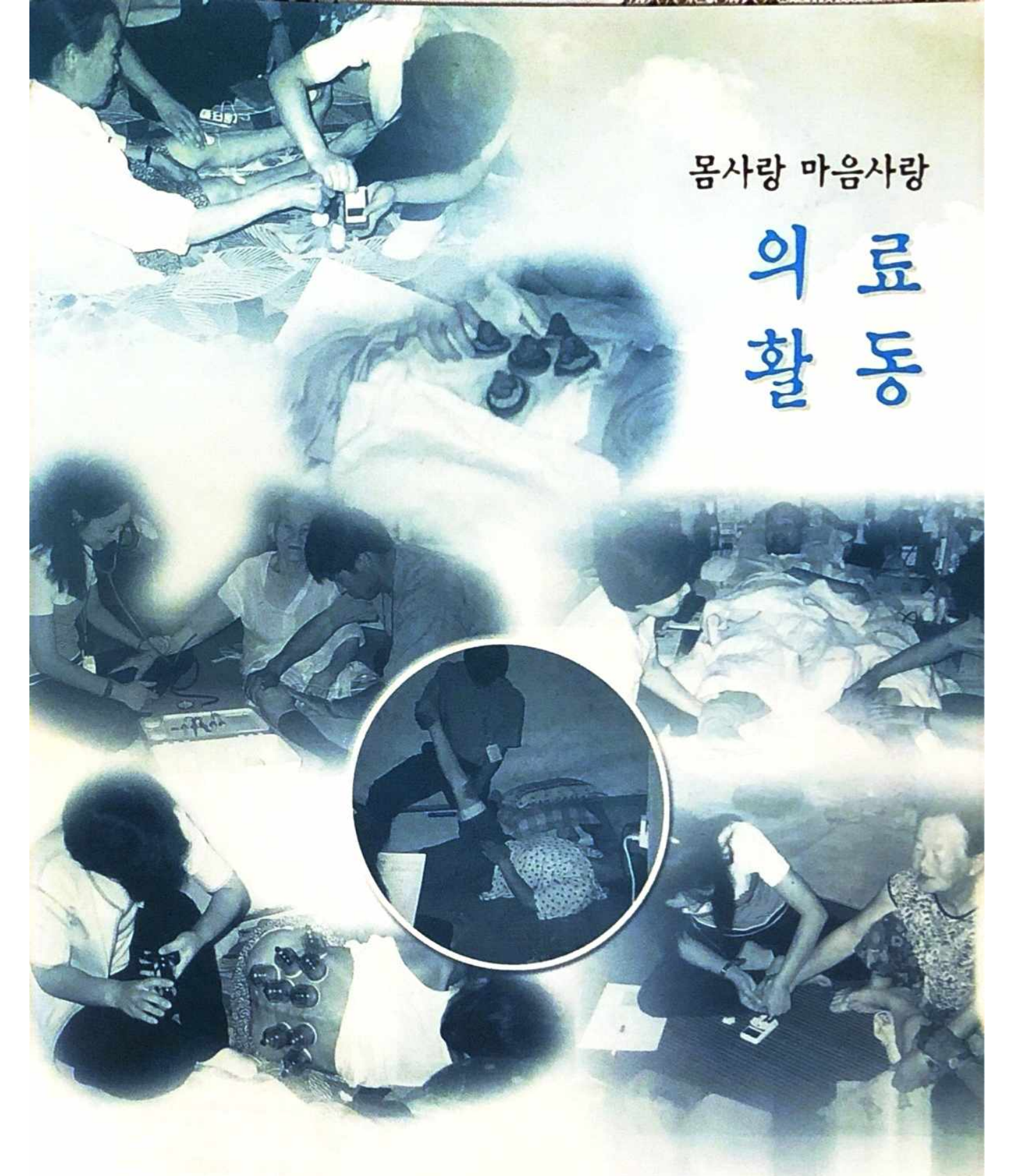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몸 사랑 마음 사랑'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전문자원봉사자 간호사 6인으로 구성된 의료서비스 '몸 사랑 마음 사랑'을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는 전직간호사 주미애 팀장을 비롯해서 현직 예수병원 간호사 김성희, 박지숙, 백미라, 정순영, 문지언 간호사 등이다.

이들은 주 1회씩 어르신들을 방문하여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관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르신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위로를 주고 있다.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의 몇가지 사례

| 이름 | 발견일자 | 증상및병력 | 조치 | 호전상황 | 치료및계획 | 이름 | 발견일자 | 증상및병력 | 조치 | 호전상황 | 치료및계획 | |
|-----|---------|-------------------------------|------------------------------------|---|---|--------------------|------|--|------------------------------------|--|---|---|
| 임○희 | 2/28 | 좌, 우측혈압차이 9년 전얼굴마비 한방치료 | 어지러움증 호소 Brain MRI촬영 권유 | 경제적이유로 촬영 못함. 현재 한방치료 | 계속한방치료, 침, 약물 뇌졸중예방 | 강○순 | 2/6 | 본센터 작년 혈압발견약 복용 | 220/140 지속적복용을안하고있었음 | 지속적인고혈압관리138/80, 140/80, 140/80으로안정상 태였으나현재 몇주정도180/90 | 지속적인약물치료및식이요법관리 및운동요함 | |
| 김○례 | 2000/3월 | 본센터에서 혈압발견 | 2000년 4월 전주병원에 서 고혈압진단, 치료중 | 지속적인혈압관리로안정상태 140/80 | 지속적 혈압관리 | 임 ○ | 2/8 | 고혈압거동불편약복용못함 와상상태 140/90, 180/120, 180/120 | 방문시영양죽공급, 의료기관연계 | 혈압약제 공혈압안정적 조절, 기력회복, 건강상태 양호해짐 | 보호자의역할소홀, 지속적인건강관리약물섭취여부확인 | |
| 정○림 | 2/6 | 98당뇨진단 치료, 본센터 저혈당증 세발견 | 매주당뇨측정, 저혈당 증예방식사, 운동교육 | 몸에사탕맛만 것소지할것 권유 FBS: 40, 129, 88, 81, 91.70 | 합 병 증 예 방, 당뇨약,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CHECK | 이○순 | 2/6 | 고혈압발견 거동불편 | 병원방문 못함, 혈압약 제공 | 의료기관연계(다사랑의원) 혈압안정적 조절 | 독거 생활, 관리가 더욱 요청 | |
| 김○순 | 2/1 | 청각장애자, 지적능력저하, 혈압발견 | 200/120 | 차를타면광란, 차량타 승못함, 의료 기관연계, (송하숙 내과) | 200/120, 210/120 혈압약제 공, 약 복용 후 140/90, 120/80, 150/100 등 조절 양호 | 계속적고혈압관리정확한약물섭취 확인 | 소○순 | 3/14 | 얼굴이일그러지고휘파람을불수없고눈물이흐름 190/120 당뇨발견 | 동공Size우 2mm좌3mm 안면신경마비의심 Brain MRI 권유 | 전 주 병 원 예수병원의 사지시, 한방 치료, 거의완쾌, 보존적요법 당뇨고혈압약물복용 | 지속적인당뇨, 고혈압 보존적치료 마비된안면 신경의마사 지및약물치료 지속 |
| 박○수 | 2/2 | 작년본센터 불규칙적혈압발견, 약 복용안함 | 고혈압정확한지식전달 의료기관 방문 권유 | 약물복용결 과심장두근 거림, 불면 증호전, 혈압안정됨 | 지속적인고혈압의보존적치료와약물치료확인 | 오○녀 | 2/14 | 10개발가락에 발톱무좀발생 | 무좀교육, 약물치료주 1회, 두꺼워진 발톱 자름, 치료 | 발이청결하게 유지, 새 발톱이 자라남 | 6개월정도 면치료가능 | |
| 김○ | 2/6 | 어 지 러 움 증, 시야흐림, 오른쪽 팔다리통증 호소 | 뇌혈액순환 부전증에 대한교육, 수시로혈압, 약물섭취 CHECK | | 뇌졸중예방을위해질병에대해인지 시켜주며 지속적인약물섭취및건강관리 | 유○니 | 2/6 | 1990년늑내장으로실명, 삶의무의미와의욕 상실, 죽음을말하는부정적인언어와생각 | 주 1회방문하여다리마사지, 부황, 말벗, 가사 지원 | 부정적인생각에서긍정적인생각과 말로바꿔어 감 | 지속적인방문으로정서적위로와말벗을해드리는것이필요함 | |



몸사랑 마음사랑

의료활동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느껴진 점

고령에 의한 퇴행성질환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의료기관방문 필요성의 욕구를 느끼면서도 차량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보행장애의 문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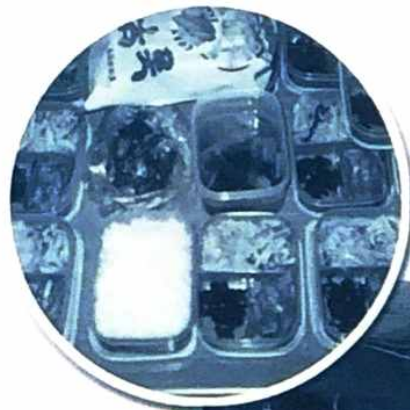
필요시대상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의료서비스 '몸사랑마음사랑' 자원봉사자 주미애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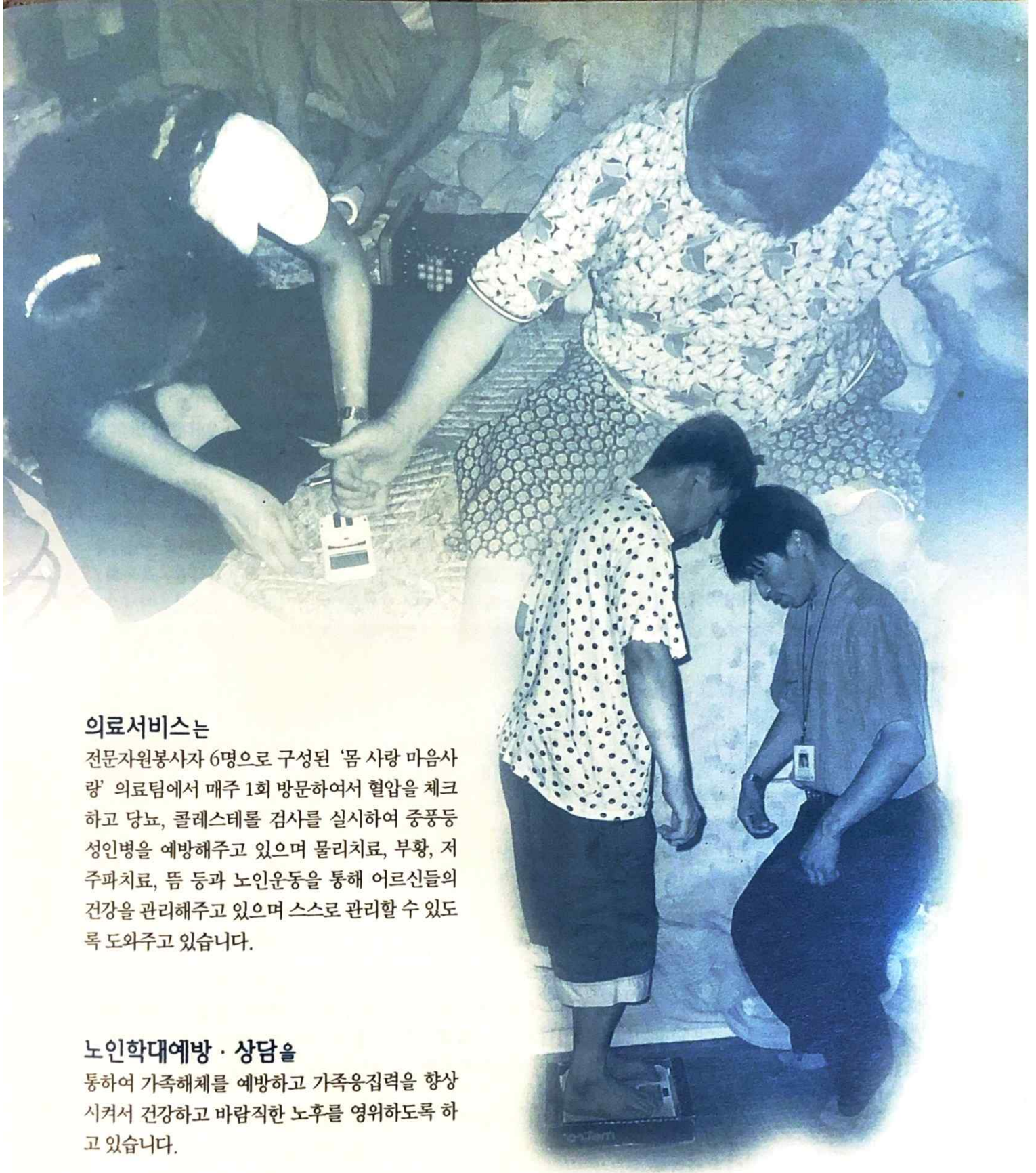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전주시 21개동의 42명의 장애인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가지 반찬에 주1회의 국, 그리고 가끔은 별식을 드리고 있
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전문자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된 '몸 사랑 마음 사랑' 의료팀에서 매주 1회 방문하여서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여 중풍등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있으며 물리치료, 부황, 저주파치료, 뜸 등과 노인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으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 상담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시켜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수, 이·미용서비스, 밀반찬서비스, 개인생활서비스 (정소, 방역, 병의원이송, 사장보기, 목욕, 편지짜주기, 공과금내주기 등)를 해주고 있으며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의 후원가족

기관 후원

여명교회

정기후원가족

해성식품 / 봉유통 / 삼천농수산물시장 / 한빛농축산영농조합 / 하림전주대리점 / 승현상사 / 강인농장 / 전종세 / 손인섭 / 전주마트(김일철) / 전주마트제과점 / 해동(임명훈) / 효자식품 / 여산식품 / 영환베이커리 / E마트(구태서)

양유순 / 노인숙 / 남궁결 / 박은경 / 신영길 / 고찬배 / 박미선 / 이금자 / 서영석 / 강원봉 / 최병환 / 박노진 / 강창일 / 이석봉 / 소점례 / 조경란 / 최경애 / 김현숙 / 권순복 / 최봉남 / 이선자 / 이점례 / 이점순 / 이소영 / 형남만 / 전순자 / 소효례 / 장영자 / 김정수 / 양영정 / 이수영 / 마복임 / 여명교회제2청년부 / 강희진 / 이재룡 / 정연희 / 김창성 / 김영란 / 진오범 / 남기옥 / 이정우 / 고희석 / 이형기 / 유정자 / 이 선 / 이석길 / 육윤희 / 김정자 / 전춘자 / 모기성 / 이석연 / 김현석 / 한인구 / 최정애 / 지은정 / 유 미 / 이영신 / 양은실 / 이세라 / 이복영 / 김학준 / 임승균 / 임현주 / 김진산 / 나효옥 / 송정용 / 송종덕

일시후원가족

은교리배농장 / 명진종합식품 / 우진상사 / 전주염업 / 전북농협양곡처리조합 / 장수촌자연란 / 오양맛살전주영업소 / 주은축산물유통 / 빅마트 / 최양호 / 온가족유통 / 성수식품 / M-유통 / 백만수산물 / 청솔유통 / 찬미식품 / 하림완산대리점 / 서해젓집 / 마이산김치 /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 / 전주농산물물류센터(박성용) / 노성옥 / 오은순 / 송연태 / 박찬현 / 양기섭 / 김하숙 / 주성식 / 오점례 / 김쾌례 / 김옥례 / 신점녀 / 조점녀 / 송춘자 / 오동철 / 장 미 / 김진이 / 이옥례 / 차상현 / 차상운 / 차상미 / 우강숙 / 이형기 / 김정숙 / 김수길 / 박찬현 / 김민철

6월1일 봄맞이축제 행사후원가족

고려식품 / 전주종합상사 / 오복떡집 / 원조떡집 / 롯데칠성음료(전주지점 양병욱) / 롯데칠성음료서부대리점(박동규) / CM디자인그룹 / 네오이벤트 / 동방기획 / 상록수화훼직판장 / 풍년그릇마트 / 광복전자 / 흑백사진연구회 / 전북사진총연합회(김지연,이현숙)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 사립문고협의회 / 가나안신협 / 호성동동사무소 / 효자4동동사무소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

형남만 / 소점례 / 김하숙 / 송동원 / 배성규 / 구태서 / 박명식

전북노인학대 예방 상담센터 자문위원

정남(정남신경외과) / 전봉호(전봉호법률사무소) / 김현웅(전주대학교) / 함현진(주찬양교회) / 소강춘(전주대국어교육과) / 박병호(전북은행전북대지점 지점장) / 김수길(서신한의원) / 유용선(금융인)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2000 해넘이 자원봉사자의 밤
 일시: 2000.12.22(금) 오후 7:30 장소: 여명교회당 제1강의실 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여명교회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자원봉사가족

· 정기적 가정봉사자

정순영, 백미라, 김현아, 조운주, 노승주, 유근례, 김옥자, 양유순, 최 현, 하상국, 장한나, 유미숙

· 정기적 의료봉사자

오동철, 주미애, 박지숙, 김성희, 백미라, 정순영, 문지연



· 도시락준비 및 배달봉사자

김옥자, 양인순, 김현아, 윤미례, 장한나, 주미애, 권현정, 이수영, 양은인, 노승주, 김인강, 박래승, 진소민, 진영준, 박한신, 신상희, 김진영, 김정숙, 김석환, 김철희, 박용수, 라병수, 강희찬, 김요셉, 박광문, 정경모, 양효남, 최 현, 양기순, 김출봉, 최은선, 송진화, 이병재, 신순길, 한경준, 최명순, 최영순, 오동철, 이윤재, 설영애, 최복현, 강희찬, 소미자, 소점례, 정유성, 여경훈

· 비정기적 자원봉사자

김민경, 안요셉, 안요한, 천홍지, 이미경, 김길순, 정영란, 정숙희, 이도형, 김화영, 김동환, 이희용, 김인강, 박미화, 박지숙, 이영주, 박형근, 김영관, 문세권, 임은희, 윤진경, 김민희, 최은정, 박은영, 김진성, 이소영, 신효득, 최원호, 이순애, 안순이, 양은인, 우영동, 고경효, 서기성, 마고은, 박미혜, 박희영, 이승환, 최연희, 박은성, 조계석, 김기현, 노영숙, 송미영, 배수현, 박소희, 박수희, 권오이, 장연정, 박주인, 김재격, 유 별, 박미정, 최미선, 박양섭, 박해성, 이오연, 김은숙, 박기초, 박창환, 이성우, 김주희, 송재우





· 자원봉사단체

여명교회제1.2.3대학부, 여명교회고등부, 여명교회주일부, 여명교회문화선교팀 '문을여는사람들' 반딧불, 우석대학교아동복지학과다솜동이, 우석대학교기독교동아리ESF, 완산구청해바라기봉사단,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상산고나누리, 호남제일여고밀알, 전주대학교풍물동아리개망쇠, 한일장신대학부사회복지학부, 대한연합신학교, 난경국악원, 효자4동여성동호회, 금선무용학원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소식 및 동정

- 1월** 19일 시청 사회복지과 김학봉계장님께서 정금안어르신께 지원금 십만원을 전했습니다.
20일에는 근화제약 직원일동이 소재순 김창순 백옥례 임철수어르신께 지원금 십만원씩을 전했습니다.
- 2월** 3일에 서신동에 사시는 이영일어르신이 전립선암 말기로 예수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15일에는 거동불편 저소득장애인도시락배달이 전주시 21개 동 40명의 장애인에게 시작되었고 같은 날 여명재가노인복지센터 소속 자원봉사회회 임원모임이 있었습니다.
20일날 평화동에 계시는 문태원어르신께서 군산유한양로당에 입소하셨습니다.
21일에는 본 센터의 『몸 사랑 마음사랑』의료서비스가 도민일보 특집기사로 취재되어 나왔습니다.
평화동에 이창래어르신이 오랜 지병인 중풍으로 계시다가 24일에 별세하셨습니다.
- 3월**에는 2년 동안 엠마오사랑병원에 입원해 오셨던 소병갑어르신이 심장, 신장질환 악화로 온 뇌경색으로 1일날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전주시 자랑스런 선행시민에 본 센터 『몸 사랑 마음사랑』의료서비스로 김성희자원봉사자가 자랑스런 선행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제6기 유급자원봉사자교육이 6일날 있었고 7명의 수료자가 있었습니다.
전동사시는 김원순어르신께서 성요셉동산양로당에 9일 입소하셨습니다.
14일 색장동에 사시는 김씨어르신이 별세하셨습니다.
15일 1분기 자원봉사자의 밤 및 사례발표가 있었고 자원봉사자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자는 김옥자 양인순 윤미례 김정숙 양기순 박용수 김철희 박광문 정경모 봉사자였습니다.
안정순어르신의 서비스가 26일로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염점래어르신이 예수병원에 입원하여 다리수술을 하셨습니다.
30일에는 심용선씨가 소양 성바로병원에 입소했습니다.
- 4월** 6일에는 2000년 2월부터 연탄가스 중독으로 엠마오사랑병원에 입원중이던 문순림어르신이 별세하셨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제27기 무급가정봉사원교육이 있었고 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몸사랑 마음사랑』에 필요한 의료기의 추가 구입이 23일에 있었습니다.
26일에 순창 강천사에서 직원야유회가 있었습니다.
- 5월** 8일에는 전북농협양곡처리조합에서 사랑의 쌀 200KG을 기증 받았습니다.
- 6월** 1일에는 『여명재가노인봄맞이축제 및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래자랑에 효자4동에 사시는 강운순어르신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79세의 어르신이 상품으로 받은 쌀20KG을 불끈 들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15명의 어르신이 영정사진을 찍었고 60명의 자원봉사자와 57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북 노인학대예방상담센터 개소식』에 최바울라 가리파스방배복지관장과 김완주 전주시장의 축하그리고 한일장신대 김훈교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14일에는 2·4분기 자원봉사자의 밤이 윤미례, 양유순 자원봉사자의 사례발표 속에 23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졌습니다.
심용선씨가 16일에 간경화로 사망하셨습니다.
26일에는 당당한 주체로서의 여성노인출발행사에 본 센터의 어르신1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도시락서비스 대상자들의 감사편지

2월 19일
월요일

부탁 드립니다
도시락 배운 사옹 하겠어요
몇년 후에 줘주세요 생각해보실래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제 대답은 던져 주시는
부탁드립니다. 음식 맛있던
강정길

4월 9일
월요일

복기사님 :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강정길

4월 13일
금요일

복기사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강정길

5월 9일
수요일

복기사님 :
반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강정길

5월 9일
수요일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
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고하십시오
- 이 시경 올립니다 -

5월 14일
월요일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
감사히 아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손끝에 담긴
정성과 사랑으로
적어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갚으렵니다.
- 이 시경 올립니다 -

“음성장애인 강정길씨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본 센터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감사의 편지를 보내줌으로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었고 보람을 느끼게 했다.
또, 혼자서 사는 이시경씨는 키 167cm에 몸무게 30kg으로 현재 몸이 너무 약해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도시락을 먹음으로써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갚으렵니다.”라는 글귀를 보내주어서 그의 사정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눈물이 핑 돌만큼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차량봉사자, 간병, 목욕서비스, 재활보조, 병원동행, 청소, 식사차려주기, 세탁, 말벗 해주기 등 혼자사시는 외로운 노인,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분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어려운 노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금후원 -현물후원(식품류,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예금주 : 여명재가 노인복지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